

무안 남악·오룡 공용주차장 ‘알박기’ 점령 주민 불편

장기간 방치...안전 위협·주차난 가중
주차장법 개정 불구 단속 실적 ‘0건’
郡 “제재할 방법 無” 소극 행정 일관

무안 남악·오룡지구 공용주차장이 장기 주차된 카라반, 캠핑카, 대형 차량으로 점령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군의 실질적인 단속이나 행정 조치가 전무해 주민들의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오룡지구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차량 통행이 급증한 지역임에도 불

구하고, 주거 밀집지역 인근 도로변과 공용주차장에는 카라반과 대형 차량들이 장기간 고정 주차돼 있다.

해당 차량은 낮에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밤에는 차로를 잠식해 교통 흐름을 마비시키고 있어 주민들은 “주차장이 아니라 위험지대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공용주차장은 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임에도, 일부 카라반 소유자들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사실상 상주하듯 점유헤 정작 인근 주민들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이중 주차와 불법 주차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무안 남악·오룡지구 공용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카라반과 캠핑카, 대형 차량들. <무안=김상호 기자>

인근 주민 A씨는 “어두운 시간에 카라반 때문에 시야가 가려 아이들과 노약자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주민 B씨는 “계도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지역처럼 즉각 견인해야 한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2024년 1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료 공용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 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단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이다.

실제로 아산시, 서귀포시 등 다수 지자체는 전소주차와 계도 후 즉각 견인 조치를 시행하며 주

차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은 공용주차장과 임시 주차장, 협약주차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행정 개입이 어렵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어 규정은 존재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전형적인 ‘유명무실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못 되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함평군, 국·도비 1천538억 역대 최대 ‘성과’

공모사업 22건...단일 연도 최고액

풍수해 정비 등 주민 삶 향상 앞장

함평군이 올해 정부·전남도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천53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2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천538억2천2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 중 국비는 749억2천400만원, 도비는 102억5천9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단일 연도 기준 군정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외부 자원 확보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연초부터 공모사업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증을 거친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연구용역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와 현장 실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치밀한 전략을 펼쳐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전지구 풍수해생태권 종합정비사업’이다. 총사업비 468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대전면 일원의 고질적인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 정비와 배수펌프장 설치, 우수관로 확충 등을 통해 항구적인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제와 농업, 복지 등 다방면에서

균직한 사업들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재생사업(250억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163억원) ▲산단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114억원) ▲그린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98억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74억원) 등이 포함돼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성과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함평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확보된 사업들이 조기에 착수돼 군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제10기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전남 참여단은 최근 목포 폰타나비치호텔에서 성과평가를 가진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제10기 전남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제공>

제10기 전남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성과평가회

생활 밀착 아이디어 발굴·봉사 앞장

제10기 전남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올 한 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25일 제10기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전남 참여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목포 폰타나비치호텔에서 박종선 회장을 비롯한 단원과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 정책 제안과 봉사 활동에 힘쓴 공로로 박 회장 등 2명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어 전남도지사상 6명(참여단 4·공무원 2), 전남도의장상 5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여수시가 우수시로 선정됐다.

지난 3월 출범한 제10기 전남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총 104명의 단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봉사 활동에 앞장서며 도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정양수 전남도민행복소통실장은 “참여단의 제안은 도민의 시선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중요한 창구”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종선 회장은 “한 해 동안 ‘더 살기 좋은 전남’을 위해 헌신해 준 단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재난 ‘선제 대응’

제설제 확보·스마트 쉼터 설치 등

완도군이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군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이범우 부군수 주재로 종합대책 보고회를 갖고 ‘시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선제적 재난·재해 예방 ▲취약계층 지원 강화 ▲농·수·축산업 재해 예방 ▲생활 안전 관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사진>

군은 기습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자재를 기준량 대비 120% 이상 넉넉히 확보했으며, 공공 건설 현장 25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마쳤다.

특히 전남 최초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스마

트 통합 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관내 한파 쉼터 7개소에 온열 매트 등 방한용품을 비치해 한파 대책에 나선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난방비와 방한용품 꾸러미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고지대 등 동파 취약 지역에는 상수도 급수 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재난은 발생 후 수습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서 간 빈틈없는 협력으로 군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암군, 내년 5월 도기박물관서 ‘백제 국보’ 선포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 선정

‘산수·봉황무늬 벽돌’ 등 작품 전시

내년 5월 백제의 우아한 미의식이 깃든 국보급 문화유산이 영암 군민들을 찾아간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도기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주관하는 ‘2026년 국보순회전’의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국보순회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중요 문화유산을 지역 박물관에 순회 전시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 전시다.

영암도기박물관에서는 내년 5월 중순께 ‘백제문양전’을 주제로 특별 전시가 열리며, 백제인의 뛰어난 예술혼과 조형 감각이 집약된 ‘산수무늬 벽돌’과 ‘봉황무늬 벽돌’ 등 진귀한 보물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유물들은 세련된 문양과 자연을 바라보는 고유의 미의식이 담겨 있어 한국 고대 미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선정은 영암군이 지난 2024년 순회전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 후 전담 학예 인력을 보강하고 전시 운영 세부 계



산수무늬 벽돌(왼쪽)과 봉황무늬 벽돌. <영암군 제공>

획을 치밀하게 수립하는 등 국립 기관과의 협업 역량을 대폭 강화한 끝에 얻은 성과다.

내년 국보순회전 개최지는 총 6곳으로 상반기에는 ▲영암도기박물관-백제문양전 ▲의령 의병박물관-삼감청자 ▲진천 종박물관-청화백자이며, 하반기에는 ▲고창세계유산고인돌박물관-농경문청동기 ▲청도박물관-금관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백자가 예정돼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국보순회전은 지역으로 사람을 불러들이고 영암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유물 전시를 넘어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더 많은 관람객이 영암을 찾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진도군 공용터미널 새단장...교통 편의 ‘쑥’

진도군이 공용터미널을 새단장하고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 복지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 공용터미널의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시행 이후 늘어난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건물 외벽 보강과 노후 창호 교체로 안전성을 높였으며, 특히 전장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고 냉온풍기를 신규 설치해 계절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진도여객은 이달부터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형 전가버스’ 1대를 도입해 운행에 들어갔다. 군은 이를 시작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군민의 소중한 일상이라는 생각으로 환경 개선에 힘썼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교통 체계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강진군, 축제 다화용기 도입 온실가스 감축 ‘톡톡’

폐기물 24%·일회용품 37% 감소

‘탄소 없는 친환경 축제’ 정착 박차

강진군이 지역 축제에 전격 도입한 다화용기 지원 사업이 실제 폐기물 감축과 탄소 중립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강진군 축제 폐기물 실태조사’ 완료보고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사진>

이번 조사는 정책의 실효성을 정밀 검증하기 위해 전남도, 강진군,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약 10개월간 주요 축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다화용기를 도입한 축제의 방문객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50.5g으로 집계돼, 다화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축제(66.3g) 대비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제 쓰레기의 주범인 일회용품 발생량은 1인당 22.6g에서 14.2g으로 37% 이상 급감하며, 현장에서는 일회용 종이컵·나무젓가락·플라스틱 컵 등의 사용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



어 다화용기가 이를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기후 위기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도 뚜렷했다. 일회용품의 생산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다화용기 사용 시 1인당 배출량은 35.8gCO2에 그쳐 미사용 축제(58.4gCO2)보다 무려 39%가량 저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다화용기 사용이 환경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운영 방식을 더욱 고도화해, 강진군의 모든 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축제 모델’로 정착시켜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